
지바시의 '다문화공생 지역만들기' 추진지침

(개요)



헤이세이 29년 (2017년) 12월

1 지침의 책정배경 등



「다문화 공생」이라 해도, 그다지 감이 안 오네...
나하고도 관계가 있을까?

꽃이 만발하는 마을 만들기
심볼 캐릭터
「지하나짱」

안녕하세요♪ 「다문화 공생」이란, 「국적이나 민족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며, 대등한 관계를
맺으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
왜 이런 지침을 만들게 되었는지 설명하려고 해요♪



○ 지바시에서는, 인바운드 (방일 외국인 손님) 관광 및 MICE (국제 회의등)의 연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도쿄 2020 올림픽 · 패럴림픽중 7 종목의 경기개최와 「국가전략
특구」로 지정을 받아, 해외로부터도 비즈니스나 생활의 공간으로서 선정될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가전략 특구」 : 나라가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제적인 경제활동의 거점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이나 그 외 시책을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 지바시에서는 마쿠하리 신도심을 중핵으로
「근미래기술실증·다문화도시 구축」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헤이세이 4년 (1992년)에 약 9천명이었던 외국인 시민수는, 헤이세이 29년 (2017
년)에 이르러 약 2만 3천명이 되었습니다. 지바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외국인 시민이 사는 국제도시로서, 국적과 언어, 문화 등의
차이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더불어 보다 즐겁고 보다 풍요로이 생활할 수
있는 다문화 공생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지역만들기 활동에 있어 점점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사적 가소리 패총 PR 대사
가소리누

국제도시로서의 지바시의 새로운 발전을 목표로,
다문화공생 지역만들기를 위한 연계활동의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 다양성을 도시의 활력으로
하는 「지바시 다문화공생 지역만들기 추진지침」을
책정했습니다!

※다문화공생의 실현은, 「지바시 신기본계획」에 따른 분야별 계획, 「다채로운 교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바시의 현황과 과제 (1) 외국인 시민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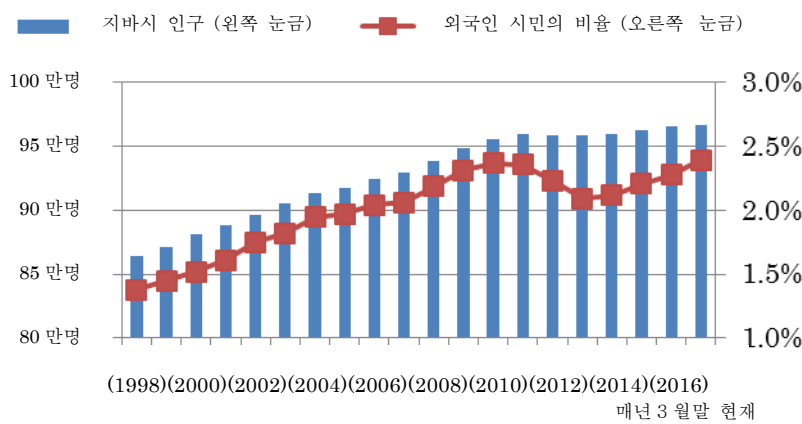


지바시에는 이미 많은 외국인 시민들이 살고 있지요.
그래서 「다문화공생」이라는 말이 더욱 친근히
느껴지는데요!

외국인 시민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지만, 정말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이제부터 소개할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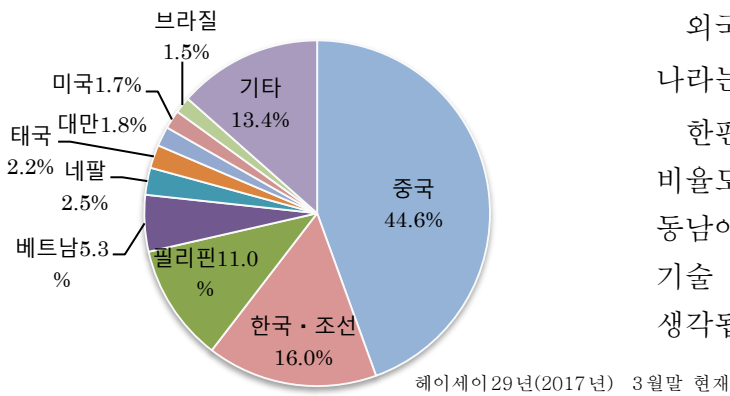
○외국인 시민수 추이



지바시 인구는 97 만명, 그
중 외국인 시민수는
약 2 만 3 천명입니다.

외국인 시민수는,
헤이세이 23 년(2011 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헤이세이 26 년(2014 년)부
터 다시 증가하고

○외국인 시민의 국적 · 지역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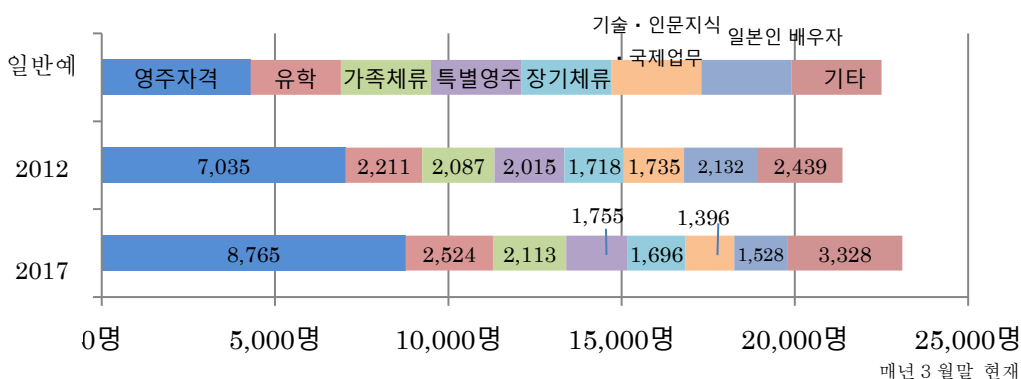


외국인 시민의 국적으로 비율이 높은
나라는 중국, 한국 · 조선, 필리핀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베트남이나 네팔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 남아시아로부터 유학생이나
기술 실습생들의 증가가 그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 시민의 체류자격 추이



외국인 시민의
체류자격별
추이를 보면,
영주자가
증가하고 있어
전체의 4 할을
차지합니다.

2 지바시의 현황과 과제 (2)직면한 과제



여러 나라로부터, 여러가지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지바시에 살고있었군요. 지금껏 몰랐었네요!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은 없을까요?

네, 크게 나누어서, 다음 3개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있어요! 이제부터 같이 알아볼까요!



①외국인 시민과 일본인 시민의 이해 촉진

헤이세이 26년(2014년) 과 헤이세이 23년(2011년)에 실시된 「시민 1만명의 지역만들기 앙케이트」 결과를 보면, 「외국인 시민과 일본인 시민의 상호이해가 진전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헤이세이 23년(2011년)과 헤이세이 26년(2014년)의 회답을 비교하면, 부정적인 응답이 약 1.5 배 증가해 있습니다.



⇒서로의 언어나 문화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해졌습니다.

②외국인 시민의 증가에 따른 대응의 복잡화

지바시국제교류협회에서 하고있는 생활상담실적을 5년전과 비교하면, 언어에서는 중국어의 비율이 줄고, 일본어나 영어, 그 외 언어의 비율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도 의료나 사회보장등 생활에 밀접한 상담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언어의 다양화나 외국인 시민들의 정주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나아가 여러 요소가 얽혀져 한층 복잡해진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내어 지역실정과 특징을 파악하여, 보다 정확한 시책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재해등의 혼란한 시기에 외국인 시민의 요구와 대응의 복잡화가 표면화되기 쉽습니다.



⇒외국인 시민에의 재해예방 지식보급과, 재해시의 신속·정확한 정보전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③국제화 추진과 다양화에의 대응

지바시는 「글로벌 MICE 강화도시」(현재 「글로벌 MICE 도시」)에 선정되고, 또한 「국가전략특구」로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때에는 시내에서 7종목의 경기가 개최됩니다.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관심을 받기 때문에, 국적이나 문화차이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인정받아 선택될 수 있는 매력있는 지역만들기를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이나 시민, 각종 단체나 기업, 교육기관 등이 정보공유를 연계하면서, 국제화 추진과 다양화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3 다문화공생 지역만들기를 지향한 연계활동



모두가 개성을 살리면서 안전하고·안심되게 생활하고, 또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함께 도우면서, 각자의 개성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지금보다 더욱 창조력이 넘치는 지역이 될 수 있겠지요!

맞아요! ! 모두의 개성, 그 「다양성」을 지역의 동력으로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을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해서, 지바시가 훨씬 살기 좋고, 세계에 개방된 활기넘치는 도시가 되는 것이 목표이지요♪ 자, 지금부터는 「지바시의 다문화공생 지역만들기 추진지침」의 「추진 기본이념」, 「추진 방향성」, 「추진 주체」를 소개할게요☆



추진 기본이념



모든 시민이, 국적이거나 언어·문화 등의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여, 그 다양성을 지역의 동력으로 활성화하는 다문화 공생사회를 실현함으로써, 국제도시로서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추진 방향성 1

모든 외국인 시민이 안전하고·안심되게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의 충실

【주요 시책의 예】

- 다양한 언어로 각종 정보제공
- 외국인 시민의 자립을 위한 일본어학습지원 강화
- 지역사회 통역자원봉사자의 보급
- 외국인 세대의 생활기반 안정
- 외국인 시민에의 재해예방 대책추진

추진 방향성 2

차이를 인정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그 다양성을 지역의 동력으로 활성화하려는 의식의 양성

【주요 시책의 예】

- 이문화 이해·상호 이해의 촉진
- 미래를 창조하는 청소년의 국제감각 함양
- 일본어 교류 추진
- 다문화 공생거점으로서의 국제교류플라자의 기능의 충실
- 인권의식의 계발

추진 방향성 3

더불어 생활을 즐기고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활동기회의 창출·확충

【주요 시책의 예】

- 국제교류 자원봉사활동 추진
- 외국인 시민과 일본인 시민이 함께 일하는 일자리 창출
- 외국인 시민과 일본인 시민이 함께 즐길수있는 공간 창출
- 외국인 유학생의 활약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연계
-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청소년의 취학지원

추진 방향성 1 :

모든 외국인 시민이 안전하고·안심되게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의
충실

태어나고 자란 모국과는 언어나 문화, 습관등이 다른 나라에서 생활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지요. 지바시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시민이 안전하고·안심되게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층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각종 정보제공

- SNS 등을 활용한 정보발신 충실
- 공공시설의 다언어표기 추진
- 홍보물의 다언어화
- 다언어정보의 일원적인 제공
- 쉬운 일본어의 보급

※ 「쉬운 일본어」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통 일본어」보다도 간단해, 아이들이나 일본어를 공부하고있는 외국인에게도 알기 쉬운 일본어를 말함.



지바시 생활가이드북
(영어·중국어·한국어·스페인어)

○외국인 시민의 자립을 위한 일본어학습지원 강화

-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제공

○지역사회 통역자원봉사자의 보급

- 지역사회 통역자원봉사자 양성강좌 개최

○외국인 세대의 생활기반 안정

- 외국인 시민 또는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시민의 취업지원
- 임대주택의 입주지원
- 시영주택입주자를 위한 설명회 실시

○외국인 시민의 재해예방 대책추진

- 외국인 시민을 위한 방재교실개최
- 외국인을 위한 방재 가이드북 (책자·동영상) 의 보급
- SNS 등을 활용한 다언어 방재 정보제공
- 재해 시의 외국인 지원센터 운영메뉴얼 책정



외국인을 위한 방재 가이드북 (책자) (영어·중국어·한국어·쉬운 일본어)



외국인을 위한 방재 가이드북의 내용과 동영상은 지바시 홈페이지에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바시 홈페이지에 링크

추진 방향성 2 :

차이를 인정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그 다양성을 지역의 동력으로 활성화하려는 의식의 양성

다문화 공생사회 추진에 있어서는, 모든 시민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움으로써, 그 다양성이 지역의 힘이 되어, 살기 좋고 활력있는 지역만들기에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문화공생의 지역만들기를 한층 더 진전시키기 위한 의식 조성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이문화 이해 · 상호 이해의 촉진

- 자매 · 우호협력도시 교류사업의 추진
- 공공시설을 활용한 외국인 시민과 일본인 시민의 교류사업을 전개

○미래를 창조하는 청소년의 국제감각 함양

- 청소년 교류사업 추진
- 학교 방문을 통한 이문화 이해교육 추진
- 각 교과와 관련한 국제이해교육의 실시
- 해외경험이 있는 교원이 아동들에게 경험을 전해주는 활동 실시

○일본어 교류 추진

- 일본어 학습지원을 통하여 외국인 시민과 일본인 시민이 교류하는 일본어 교류 추진

○다문화 공생거점으로서의 국제교류플라자의 기능의 충실

- 국제교류플라자 외의 공간에서 외국인 생활상담 개최
- 외국인 커뮤니티의 지역사회 참가거점으로서의 지원메뉴 검토

○인권의식의 계발

- 다문화 소개 및 교류회, 각종 상담, 정보제공 등 실시



청소년 교류사업 참가자들의 모습



국제교류플라자에서의 일본어 교류행사 모습
(지바 다문화협력 프로젝트 페이스북에서)

추진 방향성 3:

더불어 생활을 즐기고,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활동기회의 창출·확충

외국인 시민도, 일본인 시민도 함께, 지역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교류를 돈독히 하며, 그 다양성을 지역사회의 동력으로 발전시켜 삶을 보다 충실히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생활을 즐기며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확충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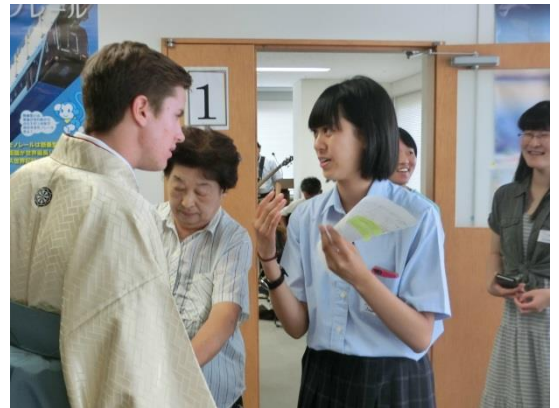


○국제교류 자원봉사활동 추진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촉진
- 국제교류 자원봉사활동의 리더 발굴 및 육성
-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외국인 시민의 지역사회 참가

○외국인 시민과 일본인 시민이 함께 일하는 일자리 창출

- 외자계기업의 시내 유치
- 외국인의 창업 지원



자매도시로부터의 지마시 방문자 대응(고등학생에 의한 통역자원봉사)

○외국인 시민과 일본인 시민이 함께 즐길수있는 공간 창출

- 외국인 시민의 자치회등 지역사회활동에의 참가 지원
- 외국인 커뮤니티와 핵심인물의 발굴
- 외국인 커뮤니티와 지역사회의 연계

○외국인 유학생의 활약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연계

-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지원
- 관계기관과의 연계 강화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청소년의 취학지원

- 외국인 아동학생을 위한 지도협력원 파견및 일본어지도 통급교실의 증설 검토
- 교원 대상의 연수 실시
 - ※ 「외국인 아동학생 지도협력원」 :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방문해, 외국인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국어와 일본어를 통해 학습지원 및 학교생활지원을 실시합니다.
 - ※ 「일본어지도 통급교실」 : 외국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고교진학이나 직업교육의 관점에서 진로선택을 내다보고, 수업에 무리없이 참여할 수 있게 일본어습득이 가능하도록 학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주체 : 모두가 주역인 지역만들기

다문화 공생사회의 구축에는, 모든 시민과 관계조직·단체등이 각자의 지식이나 네트워크, 경험과 정보, 인재 등을 활용해, 각자의 역할을 이해한 뒤에 연계하여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바시

정부나 현과 연대하면서, 지바시국제교류협회와 함께, 요구와 과제 등의 파악에 힘쓰고, 필요한 지원을 이행하는 등, 다문화 공생사회 추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재단법인 지바시 국제교류협회

시의 다문화 공생사회 추진의 핵심적인 조직으로서, 지바시와 연대하여, 다문화 이해 추진을 위한 행사나, 지역과 연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화해지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문화 공생사회 추진의 최전선으로서, 직원의 스킬 업도 도모합니다.

○시민단체, 국제교류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 외국인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는데,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축적해온 지식과 어학력 외에도, 해외사정에 정통한 전문성을 살린 활동이 기대됩니다.

○외국인 시민, 일본인 시민

다문화 공생사회의 취지를 이해하고, 문화적·사회적 배경의 차이로 해서 서로의 생각도 다를 수 있음을 당연시하는 인식 위에, 상대를 이해하고 또한 자신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

외국인도, 일본인과 똑같이, 조직을 지탱하는 인재로서, 그 채용과 육성을 추진함과 동시에, 문화·생활습관 등의 차이를 배려한 근로환경 정비나 조직 내의 다문화 이해 추진이 바람직합니다.

○대학 등

학교 내에서의 다문화 이해·국제감각 함양을 추진함과 동시에,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폭넓게 받아들여, 학업이나 지역사회활동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관계기관·단체와 연대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그 능력을 살려 지바시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취직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활동도 기대됩니다.

○초·중·고등학교 등

증가가 예상되는 외국인·귀국 아동들에의 교육환경을 정비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초·중등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주체적으로 협력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육성하는 활동도 요구됩니다. 나아가 국제교류·국제이해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는 활동도 기대됩니다.



모든 시민이 국적이나 언어·문화 등의 차이를 인정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도와, 그 다양성을 지역의 동력으로 활성화하는 다문화 공생사회를 다함께 실현해 갑시다!

